

2021

고3 3모

2021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새의 선물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한동안은 누가 나(서술자)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서술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냄, 1인칭 시점의 특징)(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나의 특징 :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함)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이유 :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

누가 나를 쳐다보면(관찰)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나'를 숨기는 방법)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두 개로 분리된 '나')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남들 앞에서 내 역할을 하는 진짜가 아닌 '나')(이 작품에서 '나'의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남들 앞에서 내 역할을 하는 진짜가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몸속에 있는 진짜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남들 앞에서 내 역할을 하는 진짜가 아닌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몸속에 있는 진짜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남들 앞에서 내 역할을 하는 진짜가 아닌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몸속에 있는 진짜 '나')(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두 개의 나로 분리시키면서 남에게 진짜 '나'를 숨김)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남들 앞에서 내 역할을 하는 진짜가 아닌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이는 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작위(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중략 이후의 상황)(중략 이전의 앞부분과는 다른 내용이 등장하므로 이렇게 줄거리가 나오면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이모와 군인의 펜팔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중략 이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면 여기는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는 것임)(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 (서술자가 아닌 군인)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갖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현실적인 꿈, 어쩌면 세속적인 욕망)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형렬이 세속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만 개인적인 행복도 함께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다. 다들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뺑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이모에 대한 사랑 고백)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곡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곡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곡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곡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특별하게 분석할 내용은 없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나’가 할머니에게 연속곡의 내용을 전달함)라고 연속곡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서술자가 아닌, 이모)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갯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역시나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1인칭 관찰자로서의 역할)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인자하고 어진 어머니이자 착하고 좋은 아내).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

의 편지는 점점センチ멘탈하게 변해 갔다.(이모의 편지가 점차 변화함)(이러한 내용을 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변화된 이모의 편지)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새의 선물'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성장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 회고적, 냉소적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의 혼용
- 주제 : 12살 소녀의 시선으로 본 삶의 이면/ 열두 살 소녀가 바라본 어른들의 삶과 자신의 성장기
- 특징
  - 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음.
  - ②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봄.
  - ③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인 문체와 치밀한 심리묘사
  - ④ 유년의 화자와 성인이 된 화자의 거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진희의 진술처럼 유년에 모든 성장을 마쳤기 때문이다.)
  - ⑤ 주인공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⑥ 60, 70년대 시대를 상징하는 기호들을 도처에 흩뿌려놓고 있어 당시의 시대상과 구체적인 삶을 고스란히 살려냄(세태 소설의 성격을 드러냄)
  - ⑦ 주인공이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시선을 분리하여 삶을 인식함

■ 이해와 감상

은희경의 첫 장편이지만 90년대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새의 선물』은 액자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대단히 모범적인 성장소설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새의 선물』의 액자 안의 서사는 성장소설의 형식이 대부분 그러하듯 구조 안에 개인의 욕망과 각성, 사회와의 갈등과 통합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의 선물』이 성장소설 일반과 지니는 유사성은 이것뿐이다. 『새의 선물』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까지의 성장소설과는 이질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새의 선물』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특성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풍속사의 재현이다. 『새의 선물』의 공간적 배경은 어느 소도시의 '감나무집'이며, 시간적 배경은 1969년이다. 다시 말해 지금·이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그곳의 이야기이다. 『새의 선물』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도 집요할 정도로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배제시킨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장소설인 「장마」 『마당 깊은 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지상의 손가락 하나』 등이 지나간 시대를 다루면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측면, 혹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던 것과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물론 『새의 선물』에도 1969년의 여러 정치적인 계기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삶의 극히 일부분으로만 등장할 뿐이다. 『새의 선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심사는 주민등록증, 『선데이 서울』, 사랑, 펜팔, 영화, 게이머, 등장인물들의 일상생활 또한 우물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새의 선물』은 그 시대 사람들의 존재방식을 주로 풍속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새의 선물』은 지난 시대의 초점을 정치적인 자리에서 풍속사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놓고 있으며, 이는 『새의 선물』만의

특의의 영역이라 할 만하다.

#### ▣ 전체 줄거리

진희는 부모 없이 할머니, 삼촌, 이모와 함께 산다. 삼촌은 서울대 법대생이고, 이모는 동네아이들을 모아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영어펜팔이 취미인데, 경자이모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형렬이라는 남자와 펜팔을 시작으로 연애편지 하게 된다. 진희는 삼촌의 빈방에서 삼촌의 책(성인잡지-선데이서울)을 읽는다. 진희는 독서 편력을 끝낸 후 성을 우습게 여긴다. 삼촌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친구 허석이라는 남자와 같이 내려온다. 진희는 허석의 동산에서 염소와 하모니카를 부는 모습에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허석은 이모에게 관심이 있다. 허석이 떠난 이후 연락이 없다. 이모의 연인인 이형렬은 경자이모와 바람이 난다. 허석은 다시 내려오게 되고, 실연당한 이모와 다정한 사이가 된다. 그리고 경자이모는 유지공장에 불이 나 죽게 된다. 허석은 다시 떠나고, 진희는 동산에서 염소와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그가 허석이 아닌 낯선 남자라는 걸 알게 된다. 그해 겨울, 진희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323-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3.26

가격 1500원

값 1,500원

